

보도설명자료 (‘16.9.2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초중고 우레탄트랙 64%에서 중금속 검출됐는데
국가기술표준원 7월에 모두 적합 판정”

(‘16.9.27.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깔린 전국 2,763개교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, 1,767곳(64%)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 검출
 -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을 받은 54개 우레탄트랙 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지난 7월 시판품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(KS)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공장에 주는 인증제도로
 - 국가기술표준원의 우레탄트랙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공하기 전의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이며
 - 교육부는 실제 학교운동장에 깔린 우레탄트랙을 조사한 결과임
 - * 학교에 실제로 설치된 우레탄트랙은 시공과정에서 경화촉진제 등이 사용되어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사료됨
 - 시공된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관리는 KS인증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감리·준공검사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조정과 이석우 과장(043-870-5380)
정연태 사무관(043-870-5386)